

주요내용

▶ 아랍에미리트, 잔류농약 문제로 요르단산 일부 과일 및 채소 수입금지

- 아랍에미리트의 기후변화환경부(The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, MOCCA)는 5월 15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일부 국가의 야채 및 과일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며,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.
-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로 인해 요르단의 일부 채소 및 과일의 수입을 금지되었고, 이집트, 오만, 레바논, 예멘 등 아랍에미리트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▶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

- 수입금지 통보를 받은 국가들은 잔류농약 분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. UAE에 농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UAE가 채택한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해야하며, 수입금지된 농산물은 당국이 규정한 안전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잔류농약이 제거 될 때까지 수입을 할 수 없다.
- UAE 정부는 영국 정부가 승인한 실험실을 통해 가공식품에 대한 살충제 잔류물을 분석하여 안전 규칙과 절차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, 수입금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* 자료 : Gulfnews 「Import ban on Jordan fruits and vegetables remains」

시사점

-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UAE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게 되다보니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련 규제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.
- 아랍에미리트는 지리상 중동시장 전역에 쉽게 접근가능하여 한국식품의 진출시장으로 적합하지만 한국 농산물의 수출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.
- UAE 주변국가의 농산물 수입금지로 인하여 한국 농산물 수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.